

이 보도자료는 2024. 7. 2.(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7. 2.(화)

자료문의 : 마약·조직범죄부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책임자 : 마약과장 이태순

마약범죄 단속 강화 위해 검찰-서울시 손잡다 - 서울시 CCTV 안전센터 현장 방문, 진화하는 마약범죄 협력대응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대검찰청은 오늘(7.2.)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효과적인 마약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속 각 자치구별 CCTV 영상정보를 마약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 서울시 CCTV 안전센터는 서울시 소속 각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의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영상정보 중계
- 이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노만석)과 서울시 디지털 도시국장(국장 박진영)은 검찰·서울시 간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수사기법 및 노하우 공유 등 마약범죄 억제에 위해 양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크웹·SNS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마약유통 수법이 첨단화되는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
 - 대검찰청은 『AI 기술』과 연동된 다중영상 기반 마약사범 추적·검거 시스템을 '26년까지 수사에 도입하는 등 마약수사기법을 첨단화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사건·사고의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범죄 발생지수 등 9개 지표를 분석하는 '지능형 CCTV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검찰·서울시 협업을 통해 총 17만대의 CCTV를 마약유통 범죄 실시간 감시·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마약 유통범죄 차단효과를 극대화 하고, 시민생활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마약류 유통범죄 수법의 변화)** 인터넷·SNS·가상화폐 등의 보급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 지속 증가

【최근 20·30대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

연도	'19	'20	'21	'22	'23
구분(명)					
20·30대 사범	7,647	9,009	9,173	10,507	15,051
비율(%)	47.6%	49.9%	56.8%	57.2%	54.6%

- **(범행수법의 변화)**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 (우편함·실외기 등 주택가 곳곳에 숨겨둔 마약류를 수거해가도록 하는 방식) 으로 변화되는 추세임
- **(유통조직 운영방식)** 다크웹·텔레그램 등 보안 SNS·가상자산의 익명성 이용, 총책, 관리책, 배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 운영
- **(수사단서 조기 포착 통한 마약류 유통 신속 차단 필요)** 주거밀집 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마약 운반책의 특징적 행동 패턴 등 범죄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차단 조치 필요
- **(서울시 CCTV를 마약수사에 활용 필요)** 24시간 상시 가동중인 서울시내 17만 대의 CCTV를 마약 수사에 활용, 마약범죄 조기 차단



【마약운반책이 주택가로 이동하여 벤치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장면(CCTV)】

2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 현황

- (광역형 CCTV 통합컨트롤타워)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5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상황실 등에 공공안전(CCTV 영상정보)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 구축한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설립·운영 중임
 - 기관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시 중심으로 통합연계, 공동활용
 - 시·자치구 CCTV 영상정보를 112·119 등에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

【 서울시 CCTV 설치 현황 (23. 12. 31. 기준) 】

구분	총계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분석	기타 다른법령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쓰레기 무단투기				
계	176,371	90,006	8,418	10,664	1,458	54,346	9,285	1,598	596
본청	3,958	209	0	0	0	2,237	390	1,122	0
사업소	10,954	830	0	1,601	25	8,498	0	0	0
투출 기관	61,944	20,220	28	476	347	39,773	642	458	0
자치구	99,515	68,747	8,390	8,587	1,086	3,838	8,253	18	596

- (실시간 모니터링)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CCTV 안전센터를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
 - '23년도 한해 월 평균 경찰에 173,704건, 소방에 18,207건, 법무부·국무부·재난상황실 등에 43,917건의 영상 제공, 특히 '마약' 관련 특별 CCTV 관제 추진하여 영상 145건을 제공 및 처리, 마약사범 16명 검거 기여

3

주요 협의 사항

- (SNS·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 적극 대응) 인터넷·SNS 마약 유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밀매범죄에 적극 대응, 마약류 유통범죄 실시간 모니터링, 범죄 의심 영상 신속 제공 및 처리

○ **(CCTV 관제 요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검찰 마약수사관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CCTV 관제 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실시간 감시방법, 실제 마약범죄 수사사례, 주요 마약류 은닉 장소 등 교육 실시

※ '23. 5. 31. 및 '24. 6. 27. 관련 교육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교육 강화할 예정임

○ **(마약 수사기법 첨단화 사업 협조)** 검찰은 현재 '다중 영상 기반 마약 사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AI 기술』 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26년까지 마약수사기법을 첨단화·전문화 할 예정

* 마약사범 식별 자료(인상착의, 복장, 이용차량 등) 입력 → AI가 추적대상을 인식, 이동방향 분석, 재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를 릴레이 방식으로 추출

- 또한, 서울시는 사건·사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으로 범죄 발생지수 등 9개 지표를 분석하는 '지능형 CCTV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추후 사업 완료시까지 긴밀히 협업할 예정

4 기대 효과

○ **(서울시 마약 거래 위축 및 감소)** 17만 대의 CCTV를 상시 가동하여 마약 유통범죄를 실시간 감시·단속하고, 『AI 기술』 과 『빅데이터』 를 통해 마약범죄 수사기법 첨단화하여 마약 유통범죄 차단 효과 극대화 기대

○ **(시민 안전 보장)**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거래를 철저히 감시·차단하여 시민들의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5 향후 계획

○ 향후에도 검찰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